

중·고등학교 교복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이 경 자* · 김 용 숙**

장수 계남중학교* ·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Teachers' Attitudes toward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Uniform

Lee, Gung-Ja* · Kim, Yong-Sook**

*Jangsoo Kyenam Middle School**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eachers' attitudes toward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uniform. The questionnaire included independent variables about teacher themselves and school surroundings, and questions about teachers' attitudes toward school uniform. The participants were 316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n Chonbuk province. Means, standard deviations, frequencies, and percentages were calculated. ANOVA test was used for differences and scheffé-test was followed. The results were:

1. Teachers were content with "Students in uniform are upright and look more studentlike." · "It's easy to supervise students outdoors.", and "There's no noticeable distinc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tudents.", and were discontent with "There's few efficiencies in coping with the temperature alternating.", "Students in uniform hardly can reveal their originality." and "It's inconvenient for the students to be dynamic in uniform."

2. Teachers in high schools and in private school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uniform. And the male teachers, teachers graduated from general college, married teachers, and teachers who have a career of more than 20 year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uniform. More variables concerned about teacher themselves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s than those about school surroundings.

3. Most of teachers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 uniform. The rank order of the reasons for the teachers' positive attitudes were "Students in uniform are upright and look more studentlike.", "It's easy to supervise students outdoors.", and "There's no noticeable distinc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tudents." The rank order of the reason for the teachers' negative at-

titudes were "Student in uniform could hardly reveal their originality.", "It's inconvenient for the student to be dynamic in uniform.", and "As they have to get the street clothes besides, economic burden becomes double in reality."

4. More than half of the teachers who are working at schools with uniform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 uniform. The rank order of reasons for the teachers' positive attitudes were "Students in uniform are upright and look more studentlike.", "It's easy to supervise students outdoors.", and "Economic burden could be decreased." The rank order of the reasons for the negative attitudes were "It's inconvenient for the student to be dynamic in uniform.", "Students in uniform could hardly reveal their originality.", and "Students cannot feel free in mind with uniform."

5. Teachers overall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 uniform whether they work at schools with uniform or without it.

I. 서 론

의복은 좁게는 그 시대에서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넓게는 시대의 흐름 및 생활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¹⁾ 또 개인의 인격이나 교양, 취미,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착용자에 대한 무언의 언어로써 제2의 피부²⁾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기본 조건인 의복이 인간의 생활형태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자기의 신체와 용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의복은 청소년들의 심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복은 각자의 역할을 무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소속감과 유대감이 커지며 스스로의 신분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을 착용시켰던 것도 학생 스스로가 학생다운 행동을 하도록 심리적인 작용을 하고 소속감이나 유대감도 증가시키며 학생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³⁾

우리나라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들은 개화기부터⁴⁾ 획일적으로 교복을 착용해 오다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복에 대한 심리적 거부반응이 일게 되었고,⁵⁾ 교복이 '낡은 시대의 유물', '일제의 잔재', '획일화의 수단'이라는 비판⁶⁾으로 인해 1983년에 교복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복 자율화 조치는 학생들의 개성과 창

의성 신장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받았지만, 탈선 행위 증가, 가계부담 증가, 고급 사복착용에 따른 위화감 조성등의 부작용⁷⁾을 이유로 들어 다시 교복 착용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여론을 반영하여 교육부는 1986년 9월 1일부터 교복을 착용해도 된다고 보완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교복자율화 정책은 미처 정착되지도 못하고 교복 부활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복을 착용하게 되면 집단에 동조함으로써 얻어지는 심리적 안정감, 행동의 조심성, 학생으로서의 자부심 등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의복에 지출되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사회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⁸⁾는 장점이 거론되면서 교육부에서는 1990년 8월에 교복착용권장으로 시행 지침을 바꾸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서둘러 신교복을 착용 시키게 되었고, 교복을 입는 학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이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갖는 기대감은 학생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⁹⁾ 이 결과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으나 교사를 객관적 관찰자 영역에 두고 밖으로 드러나는 면에 대한 영향력 연구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¹⁰⁾

새로이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의견, 학부모의 태도와 의견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으나,¹¹⁾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나 의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은 사회와 학교의 영향 속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주체는 학생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사이다. 따라서 교육의 전과정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학습지도는 물론, 학생 개인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¹¹⁾들의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교복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를 조사하여 바람직한 신교복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의 고찰

1. 청소년기의 특성과 의복행동

청소년기의 규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달라지며 개인차도 있기 때문에 엄밀한 한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대체로 중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의 시기인 12~13세 부터 18~19세 까지를 청소년기로 볼 수 있다.¹²⁾

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¹³⁾,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고, 의미있는 인지적 성장을 경험하며, 동료의 승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다.¹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동요가 심하고 흥분하기 쉽고 불안정하고 자신의 비밀을 중시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¹⁵⁾, 또한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의복과 외모로서 사회적으로 인정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성질이 의복과 신체적 외모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¹⁶⁾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특성을 의복행동과 관련지어 살펴 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현저한 성장 급등 현상이 나타나며, 성적으로도 급격한 성숙이 이루어져, 외모에 있어서는 성인과 별차이가 없으나 아직 정신적 사회적으로는 성숙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인(marginal man)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발달은 사람들이 갖는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어 의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의복이 신체상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관

심만큼 의복에도 집착하게 되므로¹⁷⁾ 의복은 신체발달에 따라 인체가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동작 적응성을 중시하여 알맞게 제작 되어져야 한다.¹⁸⁾

또한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는 자아의식이 발달하여, 동년배집단을 동일시 하며 용모에 관심이 많고 이성에 강한 호기심을 가지며 타인과 비교하는 성향이 높아 강한 경쟁심이 발생되고 자신에 탐닉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¹⁹⁾ 자신의 외모와 의복이 집단의 기준에 일치 되어야 사회적 안정감과 소속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집단의 일원이라는 과시 및 소속 욕구 표출을 위해 동일한 복장, 두발형태 등을 사용하게 된다.²⁰⁾ 따라서 청소년기의 의복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이 그 어느때보다도 청소년기의 정서적 측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²¹⁾ 자기의외모에 만족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생겨서 관대해지고 매사에 조급해지지 않으며 편안해지고, 행동면에 있어서도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그러나 잘못 입었다고 느꼈을 때는 모든일이 걱정스럽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사회활동에서 이탈 행위가 나타나며, 모든 것에 소극적인 행위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있어서 옷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옷이 개성을 나타내는 한가지 방법이며 동시에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²²⁾

Smucker와 Creekmore²³⁾의 청소년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복 동조성은 동료집단의 승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이들의 의복이나 장식은 자신을 사회화시켜 나가는 전략적 도구가 된다. Kelly 등²⁴⁾은 사회계층, 인종, 성 등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계층보다는 인종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백인 소년들이 흑인 소년보다 상황에 적합한 의복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Behling과 Williams²⁵⁾는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에게 남녀 모델의 옷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 반응으로 고교생들의 지능과 학업 기대감을 조사하였다. 교사와 고교생들은 모델의 지능과 학업 기대감을 모델이 착용한 옷차림과 모델의 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였다. 후드가 달린 의복 착용자는 지능이나 학업 기대감이 낮아 보이고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더 많이 착용한다고 교사와 고교생은 응답하였다. 이 결과

는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Liskey-Fitzwater 등²⁶⁾은 청소년기 여학생중 척추 장애가 있는 집단과 정상 집단을 대상으로 의복의 중요도와 자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척추 장애가 있는 집단의 여학생들은 자신의 신체 장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자아 개념을 높이는 데 의복을 도구로 사용하는 정도가 아주 낮았다. 의복으로 자신의 신체 장애를 감출 수 있는 경우에는 의복을 도구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으나 척추 장애자의 경우 의복으로 부목을 감추기 어렵기 때문에 풀이 하였다.

2. 교복의 역사적 변천

역사상 학생들의 교복 착용이 시작된 것은 19C 초 나폴레옹(Napoleon) 시대로서 막강한 군사력의 필요에서 학생들을 유사시 전투에 투입 시키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군인 복장을 하게 만든데서 유래한 것이다.²⁷⁾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학생제복의 시초는 1886년 8월 제정된 이화학당의 한복교복²⁸⁾과 1898년 배재학당의 양복교복²⁹⁾이다. 그후 1906년 설립된 숙명여학교가 개교 당시에는 제복이 없이 한복을 착용하다가 1907년 여름에 양장교복을 제정하여 입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생 양장교복이기도 하다.³⁰⁾

그러나 여학생이 최초로 착용하게 된 양장교복은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그때 한창 개화되던 양장교복이 주춤해지고 다시 한복 교복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복식문제 이전에 독립운동과 구국사업 후원에 전력을 기울여 나라를 되찾자는 애국심의 발로로 양장은 사치스럽고 민망하다는 생각에 연유한 것으로써, 교복도 그영향을 받아 개정되어 다시 한복 교복의 형태로 바뀌어 여름에는 검정색의 짧은 통치마에 흰저고리를, 겨울에는 자주빛 치마저고리를 제정하여 입었다고 한다. 또한 방한용으로 검정 두루마기를 겹쳐 입기도 하였다.³¹⁾

1920년대에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남학생들의 경우 스탠드 칼라형의 일본식교복이 착용되었고, 여학생들의 교복은 1930년대 거의 모두 양장교복으로 개정되어 여름에는 흰색 블라우스에 곤색 주름치마, 겨울에는 곤색이나 자주색 세일러복을 입고 스웨터를 입기도 하였다.³²⁾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르러서는 중학생 제복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군국주의 색깔을 더하고³³⁾, 여학생도

작업에 편리하도록 슬랙스나 몸빼를 권장 하였다. 이를 따라 여러 학교에서 바지 교복을 입게 되어 우리나라 여성의 바지 착용이 시작 되었다.³⁴⁾

1945년 해방 당시 착용된 학생복은 일본식 제복이었다. 이 가운데 여학생복은 해방직후부터 학교별로 새로운 교복제정의 움직임이 있어 약간의 변화를 보였는데 그 주된 모티브는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가 전후에 내놓은 뉴-룩(New-Look)에 가까운 것이었고, 반면 남학생복은 일본 것을 그대로 물려 받은 채, 겨우 그 부속에만 학교별 특징을 살려 기본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복이나 다름 없었다.³⁵⁾

그후 1953년에는 전국적으로 학교의 전통과 특징을 살린 학생복이 제도화 되어 학생들은 학생신분에 맞도록 제반 규정에 맞는 교복을 착용하였다.³⁶⁾ 그러나 1960년대에는 4.19혁명으로 정치적인 민주화 요구와 함께 교복과 두발에 대한 자율화 요구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1969년에는 문교부의 평준화 시책이 실시되면서 시·도별로 획일화 되었다.³⁷⁾ 그후 중학생의 교복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일선 중학교의 건의가 잦아 문교부에서 재검토하던 중 교복 자율화 지침이 발표되자마자 머리형의 자율화를 시작으로 교복, 신발, 모자 변경을 시도 하였다.³⁸⁾ 그래서 78년 9월 문교부는 학교 재량권에 일임하여 중학생 제복의 모양을 임의로 바꾸게 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등과 새교복의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안되어 큰 변혁을 가져 오지는 못했다.³⁹⁾

이와 같이 1960년대부터 학생제복이 일체의 잔재이며 미적 감각을 해치고 학생들의 개성 발달을 저해하며, 민주적인 교육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교복의 폐지가 거론 되다가, 정치적 유화정책이 가미되어, 1982년 두발 자율화가 실시되고, 1983년에 드디어 교복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다.⁴⁰⁾ 1983년도 부터 교복 자율화 조치가 단행되어 내용상 교복의 제작용을 완전히 배제하고⁴¹⁾ 청소년기의 본능적 자아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미의식을 존중하여 의복만이 아닌 가방및 신발 착용에 이르기까지 학생 신분엔 적합한 것을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 단계로 보아 급격한 변화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복을 착용시킴으로써 오는 심리적 위축감, 사회적 소외감, 교복과 자유복의 이중

부담등 여러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교복과 두발 모양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개성을 심어주고, 민주의식을 조장하여 자기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고 책임질 줄 알도록 하는데 자율화의 의의가 있었다.⁴²⁾ 이러한 자율의식이 학습활동을 비롯한 생활 전반에 확산되어 자율성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⁴³⁾

그러나, 학생들은 의복의 기능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학복의 자율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취할 기회가 별로 없어 자율복 착용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단계적 발전을 거치지 못하였고, 학교의 교육적인 지도마저 미비한 상황에서 자율화가 아니고 자유화⁴⁴⁾ 또는 방종화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자율화 조치 이후 학생의 교외 생활지도가 어려운데 따른 탈선행위증가, 가계부담 증가와 고급사복 착용에 따른 위화감 조성등의 부작용⁴⁵⁾을 이유로 들어 다시 교복 착용의 필요성을 내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교육부는 1986년 9월 1일 부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의견 수렴하여 교복을 착용해도 된다고 보완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자율복 착용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지적 되면서 구교복과 자율복의 장점을 갖춘 위생적이고 활동적이며 장식적인 기능까지 갖춘 새로운 형의 교복을 수정·보완하여 착용시키는 학교수가 증가하게 되었다.⁴⁶⁾

교복 자율화의 원래 뜻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제적, 위생적, 활동적, 교육적 의미에서 출발하였으나, 이제 이와 같은 요구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 자율복의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는 의복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입고, 교복은 학교측이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학생들은 공부하기에 편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양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됨으로써 다양한 여론이 신고복 착용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⁴⁷⁾

따라서,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학생의 '건전 생활 지도 계획'의 일환으로 1990년 8월에 정식으로 통학용 의복 자율화로 인한 과소비와 사치성향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교복 착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서둘러 신고복을 착용 시키게 되었고, 다시 착용하게된 신고복의 특징은 구교복과 자율복의 결점을 보완한 디

자인과 색상, 피복재료로 제작되어 학교의 특성과 개성 신장의 교육적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학생복이 되어 가고 있다.⁴⁸⁾

3. 중등학교 교복에 대한 태도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각자의 역할에 맞도록 의복을 입으려고 하는데 의복을 통한 역할의 직접적인 표현 방법이 제복(Uniform)의 착용이다. 제복은 각자의 역할을 무성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소속감, 유대감이 커지며 스스로의 신분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⁴⁹⁾

Langner⁵⁰⁾에 의하면 제복의 착용 동기는 착용자의 우월성 과시, 사회계층의 구분, 단체 정신의 함양에 있으며 특수한 집단의 제복을 입음으로써 개인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집단규칙의 범위내에서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Gurel과 Horn⁵¹⁾은 의복의 규제에 강제로 동조하게 하는 것은 규범 이탈에 대한 제 1차적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교복과 10대 청소년의 특징을 연관시켜 볼 때 청소년에게 반항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 의복 규제 및 통제된 의복에 관한 Laubach⁵²⁾의 연구에서는 개성 표현상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교복 착용을 반대하고 있었다.

김영인과 강혜원⁵³⁾의 연구에서는 개인은 특수한 집단의 제복을 입음으로써 집단 규칙의 범위내에서 행동하게 된다고 하여 교복 착용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복의 동조에 대한 학교 당국의 권한은 학생간의 긴장 완화 및 이해 증대에 도움을 줌으로써 효과적인 성인 역할의 수행을 위한 기술 습득 및 지식 축적에 학생들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도한 학생신분의 노출, 미적 감각 및 개성의 결여, 비활동성 등의 교복의 단점을 들고 경제 수준이 높고 가정 분위기가 민주적이고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율화된 복장을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김정화⁵⁴⁾와 이수희⁵⁵⁾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복의 장점으로는 옷에 신경을 덜 쓰고 학생 신분엔 맞게 행동하게 되며 단정해 보인다는 점이었고, 불편한 점으로는 비활동적이라는 점, 온도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고 있었으며 교사와 부모 입장에서는 장점으로는 학생 신분임이

확실했다는 점이였다. 또한 교복을 착용시키면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 시킬수 있다는 목적도 있는데, 최근의 이인자⁵⁶⁾의 연구에 의하면 대인 비행, 재산 비행, 약물 비행 등 심각한 수준의 비행은 교복 착용교가 자유복 착용교보다 유의하게 적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행 빈도와 교복 착용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 비행 행위가 공공질서비행이나 대인비행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하교 후에는 항상 자유복을 입고 외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복착용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권혜원 등⁵⁷⁾의 연구에서는 교복 자율화를 찬성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개성, 활동성, 해방감, 올바른 의생활 추구, 옷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점이고, 부정적 측면은 학생의 긍지를 나타낼 수 없고, 옷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며, 학생들의 통제가 어렵고, 생활의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복 착용 효과는 집단에 동조함으로써 얻어지는 심리적 안정감, 행동의 조심성, 학생으로서의 자부심 등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의복에 지출되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현재에는 범죄 증가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다.⁵⁸⁾

1973년에 조사된 교복 선호 비율은 95%⁵⁹⁾이며 1978년에 조사된 교복 선호비율은 70%⁶⁰⁾이며 1981년에는 51%⁶¹⁾로 낮아지고 있었다. 1981년에 교복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진 이유는 점차 사회 분위기가 민주화 되어 개성 표현과 자유스러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⁶²⁾

교복 선호에 관련된 변인을 보면 여학생인 경우, 부모의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교복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학생보다는 교사나 학부모 입장에서의 교복 선호율이 높았다.⁶³⁾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서 김정희⁶⁴⁾의 연구에서는 64%의 학생이 불만족을 표시했고, 이수희⁶⁵⁾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보다는 남녀공학 학생이, 부모나 교사 보다는 학생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 이유는 앞서 논한 교복의 각종 단점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 중학생들은 이미 제작된 교복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들이 느끼는 교복에 대한 불만은 사이즈에 있었다. 대부분의 남자 중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교복의 사이즈를 늘리

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교복 제조업체에서는 교복 제작시 충분한 여분을 두어야 하며, 사이즈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였다.⁶⁶⁾

대만의 경우도 1968년 부터 9년 의무 교육을 실시 하면서 각급 학교의 교복을 제정하여 계속하여 입을 수 있는 교복을 설계하였으나, 점점 시대에 맞지 않아 1984년 5월 교육부에서는 원래 입던 제복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교복의 형식과 색상을 각 학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복은 대개 전문가가 설계를 하지 않고 있어 교복에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시대조류의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의 교복에 대한 요구는 질기다거나 때타지 않는 것 보다는 각 학교의 교육특색을 잘 나타내주고, 학생들의 우아한 기품과 자신감, 그리고 영예로움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설계과정을 거쳐 형식, 색상, 장식, 그리고 재료로써 완전한 선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대 복식의 조류에 순응할 수 있는 교복의 설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⁶⁷⁾

이상과 같이 교복에 대한 장·단점을 이유로 들어 교복과 자유복의 찬 반 시비가 우리나라에서 교복을 입기 시작 했을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교복은 시대적 상황과 그에 따른 교육이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복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I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택형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자^{8) 45) 47)}의 질문항목을 연구자가 연구내용에 적합하도록 수정한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교사들의 일반 변인에 관한 사항으로 교사들의 근무학교 변인 즉, 학교형태, 학교의 구분, 학교의 소재지, 학교의 설립자 구분과 교사자신 변인 즉, 성별, 최종학력, 교직경력, 전공분야, 결혼여부, 직급에 관한 문항으로 모두 10문항 이었다. 본 연구에서 학교 형태는 남학교, 여학교, 남·

너 공학교로 구분하였고, 학교의 구분은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 고등학교로 구분하였고, 학교의 소재지는 시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학교 설립자는 국·공립 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하였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복에 관한 태도는 25문항이었고, 그중 교복에 관한 태도는 교복에 대한 견해를 묻는 20문항은 5점 Likert-type으로 아주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아주 그렇지 않다 1점을 부여 하였다. 교복의 찬성정도 및 그 이유를 묻는 문항을 각각 1문항으로 하여, 교복착용 찬성정도에 따른 이유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 1문항,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 현 교복에 대한 만족정도 및 그 이유를 묻는 문항 각각 1문항으로 하여, 현 교복에 대한 만족정도에 대한 이유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답하도록 하였다. 교복착용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유, 조사대상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착용교복에 대한 만족과 불만에 대한 이유를 중요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순서대로 3점, 2점, 1점을 부여하였다. 설문지에 피설문자의 의견에 부합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자유로운 의견을 진술하도록 각 항목에 기타란을 설정하여 의견을 수집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1) 표집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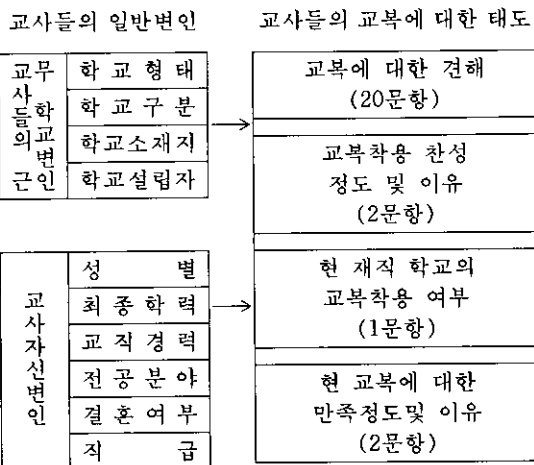
표집대상은 전북지역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중 무작위 추출한 15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360명의 교사이었다.

예비조사는 1994년 9월 1일~10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1994년 9월 16일~30일 사이에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총 360부를 우송하여 318부가 회수 되었는데 설문지중 불완전한 것 2부를 제외하고 총 316부가 분석자료로 사용 되었다.

2) 자료분석

본 자료의 처리는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유의한 경우에는 0.05수준에서 scheffè 추후검증을 하였다.

3) 중·고등학교 교복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연구 모델



〈그림 1〉 중·고등학교 교복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연구 모델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북지역의 교사들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설문지 문항은 표준화 된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교복착용에 대한 태도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 특성

1)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근무학교 변인에 관한 사항

조사대상 교사들의 근무학교에 관한 일반 사항은 〈표 1-1〉과 같다.

2) 중·고등학교 교사 자신 변인에 관한 사항

조사대상 교사자신에 대한 일반 사항은 〈표 1-2〉와 같다.

2. 교복에 대한 사항

1)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문항으로 검사한 결과 각 문항별 반응분포는 〈표 2-1〉과 같다.

문항중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보면 교복은 『단정하고 학생답다』, 『교복을 입으면 학생지도가 용이하

〈표 1-1〉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근무학교 변인

(대상자:316명)

근무학교 변인	구 분	대 상 자 수	
		빈 도(명)	백 분 율(%)
학 교 형 태	남 학 교	84	26.6
	여 학 교	98	31.0
	남·녀 공 학 교	134	42.4
학 교 구 분	중 학 교	165	52.2
	인문계 고등학교	50	15.8
	실업계 고등학교	25	7.9
	종합 고등학교	76	24.1
학 교 소 재 지	시 지 역	104	32.9
	읍·면 지 역	212	67.1
국·공·사립별	국·공 립 학 교	215	68.0
	사 립 학 교	101	32.0

〈표 1-2〉 중·고등학교 교사자신 변인

(대상자 : 316명)

교사자신 변인	구 분	대 상 자 수	
		빈 도(명)	백 분 율(%)
성 별	남 자	178	56.3
	여 자	138	43.7
최 종 학 력	사범대학 졸업	192	60.8
	일반대학 졸업	71	22.5
	사범대졸업-대학원졸업	26	8.2
	일반대졸업-대학원졸업	26	8.2
교 직 경 력	10년 미만	205	64.9
	10~20년 미만	52	16.5
	20~30년 미만	40	12.7
	30년 이상	19	6.0
전 공 분 야	어 문 계 열	83	26.3
	사 회 계 열	48	15.2
	자 연 계 열	76	24.1
	예·체능 계 열	48	15.2
	실업·가정 계 열	61	19.3
결 혼 여 부	결 혼	246	77.8
	미 혼	70	22.2
직 급	교 장·교 감	28	8.9
	주 임 교 사	60	19.0
	평 교 사	228	72.2

〈표 2-1〉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

문항	빈도(백분율)	아주 그렇다 명(%)	그렇다 명(%)	그저 그렇다 명(%)	그렇지 않다 명(%)	아주 그렇지 않다 명(%)
1. 교복은 디자인이 중·고등 학생에게 잘 어울린다.		33(10.4)	133(41.8)	115(36.4)	30(9.5)	5(1.6)
2. 피복재료는 비교적 좋다.		12(3.8)	120(38.0)	104(32.9)	69(21.8)	11(3.5)
3. 학생들의 비행행동과 탈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81(25.6)	149(47.2)	56(17.7)	24(7.6)	6(1.9)
4.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증가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38(12.0)	133(42.1)	81(25.6)	54(17.1)	10(3.2)
5. 교복을 입으면 친구들과 어울 리기가 더 편안하다.		18(5.7)	87(27.5)	95(30.1)	100(31.6)	16(5.1)
6. 교복은 단정하고 학생답다.		113(35.8)	157(49.7)	32(10.1)	9(2.8)	5(1.6)
7. 교복은 세탁,손질등 관리가 편리하다.		17(5.4)	76(24.1)	114(36.1)	99(31.3)	10(3.2)
8. 학생들이 교복을 입으면 학생 지도가 용이하다.		84(26.6)	177(56.0)	33(10.4)	17(5.4)	5(1.6)
9. 교복을 입으면 자유복을 입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65(20.6)	158(50.0)	48(15.2)	31(9.8)	14(4.4)
10. 교복을 입으면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80(25.3)	166(52.5)	50(15.8)	15(4.7)	5(1.6)
11. 교복을 입으면 옷에 신경을 덜 쓰게 되어 학업에 열중 할 수 있다.		36(11.4)	132(41.8)	84(26.6)	56(17.7)	8(2.5)
12. 학생들이 교복을 입으면 심리 적으로 안정이 된다.		28(8.9)	169(53.5)	79(25.0)	33(10.4)	7(2.2)
13. 교복은 학생들의 개성을 나타 낼수 없다 (R)		42(13.3)	117(37.0)	74(23.4)	72(22.8)	11(3.5)
14. 교복은 옷입는 안목과 미적 감각을 키울수 없다. (R)		14(4.4)	98(31.0)	76(24.1)	124(39.2)	4(1.3)
15. 교복은 온도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다. (R)		49(15.5)	140(44.3)	57(18.0)	67(21.2)	3(0.9)
16. 교복은활동에불편하다. (R)		30(9.5)	119(37.7)	76(24.1)	89(28.2)	2(0.6)
17. 교복은 자주 세탁할 수 없으므로 비위생적이다. (R)		10(3.2)	80(25.3)	87(27.5)	129(40.8)	10(3.2)
18. 학생들이 교복에 대해 긍정적 으로 생각한다.		17(5.4)	74(23.4)	123(38.9)	81(25.6)	21(6.6)
19. 학생들이 외출시 교복을 착용 하지 않는다. (R)		93(29.4)	159(50.3)	37(11.7)	23(7.3)	4(1.3)
20. 교복을 입으면 학생들이 학생 다운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28(8.9)	163(51.6)	83(26.3)	37(11.7)	5(1.6)

註) R은 반대로 채점.

다. 『교복을 입으면 빈부의 차가 드러나지 않는다』, 『교복이 학생들의 비행행동과 탈선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교복착용이 자유복 착용에 비

해 경제적이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교복을 입으면 학생다운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의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

해 대체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 것은 김영인과 강해원⁶⁶⁾의 연구결과와 김정희⁶⁹⁾와 이수희⁷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김순화⁷¹⁾의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견해 연구에서 『교복착용이 자유복 착용보다 학생다워 보이고』, 『경제적이며』, 『학생다운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급우들과 어울리기 편하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문항 선호도가 낮은 것을 살펴보면 『교복이 온도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다』, 『교복은 학생들의 개성을 나타낼 수 없다』, 『교복이 활동하기 불편하다』의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하여 교복의 단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복 자율화 이전의 최보규와 이영숙⁷²⁾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교복이 다시 입혀지게 된 교복 자율화 보완조치 이후에 이루어진 이수희⁷³⁾의 교복 착용시 불편점으로 『활동에 불편하고』, 『온도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김순화⁷⁴⁾의 교복의 단점으로 『비활동적이고 보온에 불리하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어 교복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다시 교복이 입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들이 바라보았을때, 『학생들이 통학 이외의 외출시에는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것 같다』

고 본 견해가 79.7%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수희⁷⁵⁾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일반 변인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일반 변인중 근무학교 변인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2>와 같았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근무학교 변인중 학교 형태와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 구분과 공·사립 구분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는 유의차가 있었다. 즉, 학교 구분별로 살펴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복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제일 높았고, 종합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의 순이었다.($p<.05$) 즉 중학교 교사보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복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앞에서 논의했던 교사들이 교복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인 『교복을 입으면 학생지도가 용이하다』, 『교복이 학생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교복을 입으면 학생다운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응답했던 결과는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더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공·사립 구분에 따라서는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이 국·공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보다 교복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p<.01$) 이 결과는 사립

<표 2-2>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근무학교 변인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

변 인	구 분	평균(M)	표준편차(S.D)	F-값
학 교 형 태	남 학 교	65.75	13.94	1.343
	여 학 교	66.46	11.90	
	남·녀 공 학교	64.37	10.62	
학 교 구 분	중 학 교	64.15 A	11.98	2.659*
	인문계고등학교	64.44 A	11.25	
	실업계고등학교	70.04 B	7.69	
	종합 고 등 학 교	66.82 AB	10.12	
학 교 소 재 지	시 지 역	64.37	12.93	1.072
	읍·면 지 역	65.76	10.32	
학 교 설 립 자	국·공 립 학 교	64.06 A	10.94	8.436**
	사 립 학 교	67.95 B	11.49	

* $p<.05$, ** $p<.01$, *** $p<.001$

* Alphabet은 scheffe'-Test 결과임.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은 이동이 적으나 국·공립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은 이동이 잦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이 교복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보여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일반 변인중 교사 자신 변인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중·고등학교 교사자신 변인중 전공 분야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교사들의 성별, 최종학력, 교직경력, 결혼상태, 직급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다. 즉,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교복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었고($p < .001$), 일반대학을 졸업한 교사들이 교복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가장 높았고, 일반대학 졸업-대학원 졸업, 사범대학 졸업-대학원 졸업의 순이었다. ($p < .001$) 그리고, 교직경력이 20년 이상되는 교사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가 아주 긍정적이었고($p < .001$),

결혼한 교사가 미혼 교사보다 교복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었다. ($p < .05$)

직급에 따라서는 교장·교감의 교복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가장 높았고, 주임교사, 평교사의 순이었다. ($p < .001$). 즉 교육행정을 맡은 교사들이 교복에 대하여 더 긍정적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교사들의 일반 변인중 교사 자신 변인이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 변인 보다 유의차가 더 많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었다.

3)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복 착용 찬성정도 및 이유

(1)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복착용의 찬성 정도

학생들이 통학복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2-3> 중·고등학교 교사자신 변인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

변인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F-비
성 별	남 자	67.5 A	11.31	17.697***
	여 자	62.36 B	10.48	
최 종 학 력	사 범 대 학 졸 업	63.27 A	11.31	5.707***
	일 반 대 학 졸 업	69.03 B	11.20	
	사범대학졸업-대학원 졸업	67.27 AB	9.51	
	일반대학졸업-대학원 졸업	68.08 AB	9.55	
교 직 경 력	10년 미만	63.85 A	11.00	5.126***
	10~20년 미만	63.05 A	12.63	
	20~30년 미만	70.82 B	8.88	
	30년 이상	75.48 C	4.97	
전 공 분 야	어 문 계 열	64.65	12.48	0.619 N. S
	사 회 계 열	64.33	12.31	
	자 연 계 열	66.88	11.04	
	예 · 체 능 계 열	64.51	11.10	
	실 업 · 가 정 계 열	65.80	8.80	
결 혼 여 부	결 혼	66.36 A	10.90	8.778**
	미 혼	61.91 B	11.45	
직 급	교 장 · 교 감	73.94 A	6.79	10.778***
	주 임 교 사	68.85 B	9.36	
	평 교 사	63.80 C	11.48	

* $p < .05$, ** $p < .01$, *** $p < .001$

* Alphabet는 scheffè-test 결과임.

〈표 3-1〉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복 착용에 대한 찬성정도

(대상자 : 316명)

구분	빈도(명)	백분율(%)
아주 찬성한다	61	19.3
찬성한다	147	46.5
그저 그렇다	36	11.4
반대한다	53	16.8
아주 반대한다	19	6.0

〈표 3-2〉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복 착용 찬성정도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

(대상자 : 280명)

구분	빈도(명)	평균(M)	표준편차(S.D)	F-비
교복착用に 찬성한다고 응답한 교사	208	71.05 A	6.68	2.08***
교복착用に 반대한다고 응답한 교사	72	50.75 B	9.63	

*** p<.001

* Alphabet는 scheffè-test 결과임.

교복착用に 대해 찬성의 의견을 보인 교사는 65.8%, 반대 의견을 보인 교사는 22.8%로 많은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수희⁷⁶⁾의 조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사들의 교복 착용에 대한 찬성율이 1988년의 5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1983년의 교복 자율화로 인해 자유복 착용기를 거치면서 자유복 착용시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교사들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복 착용 찬성 정도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

〈표 3-1〉에서 『아주 찬성한다』와 『찬성한다』에 응답한 교사를 합한 208명을 『교복착用に 찬성』하는 집단으로 구분하고, 『아주 반대한다』와 『반대한다』에 응답한 교사를 합한 72명을 『교복착用に 반대』하는 집단으로 구분한 후,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복 착용 찬성정도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3-2교복 착용에 찬성한 교사들이 교복착用に 반대한 교사들 보다 교복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p<.001), 교복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가 높은 교사의 경우 교복착用に 찬성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복착用に 대해 찬성하는 이유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복착用に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복 착용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단정하고 학생답게 보이므로』가 가장 많았고, 『집단 규칙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용이 하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적으므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수희⁷⁷⁾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교복 착용에 대한 찬성 이유는 『학생신분이 확실해지므로』, 『단정해 보이므로』, 『집단 규칙의 범위내에서 행동하므로』의 순이었고, 최홍자⁷⁸⁾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교복 찬성에 대한 이유는 『학생답다』, 『옷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생활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의 순이었고, 고유빈⁷⁹⁾의 연구 조사에서는 교사 집단에서 『학생 답기 때문에』가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복착用に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복 착용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개성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가 가장 많았고, 『활동에 불편하므로』, 『외출복을 따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중부담이 되므로』, 『심리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하므로』의 순이

〈표 3-3〉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복 착용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

문항	빈도	상대점수(1254점)	백분율(%)
1. 단정하고 학생답게 보이므로		503	40.1
2. 집단규칙의 범위내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용이하므로		181	14.4
3.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적으므로		148	11.8
4. 학생의 긍지와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123	9.8
5.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106	8.5
6. 옷에 신경을 덜 쓰게 되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으므로		81	6.5
7. 학생간의 유대감이 함양되므로		33	2.6
8.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므로		79	6.3

註) 교복착용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선택하도록 하여 그 순서에 따라 3점, 2점, 1점을 부여하여 상대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3-4〉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복착용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문항	빈도	상대점수(1254점)	백분율(%)
1. 학생들의 개성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137	32.2
2. 활동에 불편하므로		85	20.0
3. 외출복을 따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중부담이 되므로		78	18.3
4. 옷 입을 수 있는 안목과 미적 감각을 키울 수 없으므로		24	5.6
5. 심리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하므로		55	12.9
6. 온도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므로		39	9.2
7. 옷차림에 변화가 없어 싫증이 나므로		6	1.4
8. 디자인이 유행에 뒤떨어지므로		2	0.5

註) 교복착용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3가지 선택하게 하여 그 순서에 따라 3점, 2점, 1점을 부여하여 상대점수를 산출하였다.

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획일화 시키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시키며, 학생들의 통계 수단으로 이용 되므로』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수희⁸⁰⁾의 연구에 의하면 교복 착용시 불편한 이유로 교사들은 『활동에 불편하다』, 『심리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하다』, 『온도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다』의 순이었고, 교복 착용이 활동에 불편하다는 의견은 교복 자율화 이전의 최보규와 이영숙⁸¹⁾, 교복 자율화 보완조치 이후의 이수희⁸²⁾와 김정희⁸³⁾, 김순화⁸⁴⁾의 연구 결과와 순서상의 차이는 있으나 일치하였다. 여기에서 교복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다시 교복이 입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현 교복 만족 정도 및 이유

(1)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복착용 여부
조사대상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교복착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조사대상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64.6%가 교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교복착용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현 교복착용에 대한 만족정도 본 연구 조사대상 교사들 중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204명에게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한 만족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근무하는 학교의 교복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2.9%, 『불만족이다』는 응답이 20.5%로 대체적으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수희⁸⁵⁾의 연구에서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해 교사들의 80.5%가 만족하고, 19.5%가 불만족하다는 연구와 비슷하였다.

(3) 교복착용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현

교복착용에 대한 만족정도 및 이유

본 연구 대상 교사들중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204명중,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108명에게 만족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현재 착용하는 교복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로 『단정하고 학생답게 보이므로』가 42.0%로 가장 중요

한 이유였으며, 두번째 이유로 『학생지도가 용이하므로』가 17.3%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복 자율화 이후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탈선행위증가의 이유를 들어 교복을 착용해도 된다⁸⁶⁾는 보완조치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세번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적으므로』가 13.8%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부담이 적다』가 낮은 이유는 통학이외의 외출시에는 대체로 자유복 착용을 하므로⁸⁷⁾ 교복 착용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점이 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의 <표 3-3>의 교복착용의 찬성에 대한 이유와 일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복착용이 『단정하고 학생답게 보이고』, 『학생지도가 용이하므로』 교복을 착용해야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표 4-1>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복착용여부

(대상자 : 316명)

구 분	빈 도(명)	백 분 율(%)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04	64.6
자유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112	35.4

<표 4-2>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현 교복착용에 대한 만족정도

(대상자 : 204명)

구 분	빈 도(명)	백 분 율(%)
아주 만족한다.	26	12.7
만족한다.	82	40.2
보통이다.	54	26.5
불만족이다.	36	17.6
아주 불만족이다.	6	2.9

<표 4-3>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현 교복착용 만족에 대한 이유

문 항	상대점수(645점)	백 분 율(%)
1. 단정하고 학생답게 보이므로	275	42.0
2. 활동하기 편리해서	15	2.3
3. 세탁, 손질등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	15	2.3
4. 경제적 부담이 적으므로	90	13.8
5. 심리적 안정감을 주므로	59	9.0
6. 학생지도가 용이하므로	113	17.3
7. 옷에 신경을 덜 써 학업에 열중할 수 있으므로	42	6.4
8.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45	6.9

註) 현 교복착용 만족에 대한 이유를 3가지를 선택하게 하여 그 순서에 따라 3점, 2점, 1점을 부여하여 상대점수를 산출하였다.

있으며, 교복을 학생이라는 신분표시의 수단으로 가장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 교사들중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현재 착용하는 교복에 대하여 『불만이다』고 응답한 42명의 교사에게 그 불만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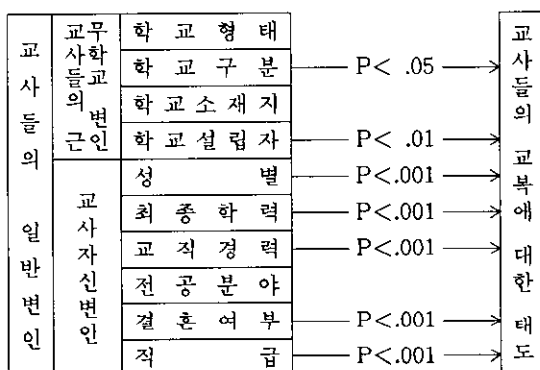
현재 착용하는 교복에 대해 불만족인 이유로 『활동에 불편하므로』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으며, 『학생들이 개성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심리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하므로』의 순으로 나타나 앞에서 <표 3-4>의 교복착용에 대해 반대할 때 그 이유로 『학생들의 개성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활동에 불편하므로』, 『외출복을 따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중부담이 되므로』와는 그 순서상의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은 일치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율화 이전인 1981년에 실시되었던 김춘식⁸⁸⁾의 연구조사 결과와 일치하고, 자율화 이후 이수희⁸⁹⁾의 연구조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자율화 이전 교복이나 자율화 이후 교복이나 활동적인 면에서 별로 개선된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사들이 근무학교의 교복착용 여부에 따른 교복 찬성정도 조사대상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복

착용 여부에 따라 교사들의 교복착용에 대한 찬성 정도에 대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교복착용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67.6%가 교복착용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고, 자유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62.5%가 교복착용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유복착용 학교와 교복착용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모두 교복착용에 찬성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연구결과 모델



<그림 2> 중·고등학교 교복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연구결과 모델

<표 4-4>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현 교복착용 불만에 대한 이유

문항	상대점수(240점)	백분율(%)
1. 활동에 불편하므로	84	35.0
2. 세탁,손질등 관리가 불편하므로	29	12.1
3.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26	10.8
4. 심리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하므로	45	18.8
5. 비위생적이므로	10	4.2
6. 학생들의 개성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46	19.2

註) 현 교복착용에 불만인 이유를 3가지를 선택하게 하여 그 순서대로 3점, 2점, 1점을 부여하여 상대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4-5> 교사들의 근무학교의 교복착용 여부에 따른 교복착용 찬성정도

(대상자 : 316명)

구분	아주	찬성	그저	반대	아주	합계
	찬성한다	한다	그렇다	한다	반대한다	
근무학교 변인						명(%)
교복착용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41(20.1)	97(47.5)	23(11.3)	31(15.2)	12(5.9)	204(100)
자유복착용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0(17.9)	50(44.6)	13(11.6)	22(19.6)	7(6.3)	112(10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복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보고,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 교복착용에 대한 찬성 정도 및 이유, 교복착용 찬성 정도에 따른 교복에 대한 태도,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한 만족 정도 및 그 이유를 알아 보아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를 조사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북지역에 근무하는 중·고등학교 교사 316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ANOVA분석, scheffè-test를 실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복에 대한 견해는 『교복을 입으면 단정하고 학생답다』, 『학생지도가 용이하다』, 『빈부의 차가 드러나지 않는다』, 『학생들의 비행행동과 탈선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경제적이다』 라는 점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고, 『교복이 온도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다』 『학생들의 개성을 나타내기 어렵다』, 『활동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을 지적하였다.

2.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보다 더 긍정적이었고,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이 중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보다 교복에 더 긍정적이었고,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이 국·공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보다 교복에 더 긍정적이었으며, 일반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 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교사가 20년 미만인 교사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며, 결혼한 교사가 미혼 교사보다 더 긍정적이었고, 학교 행정을 맡은 교사가 평교사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교사 자신 변인이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변인 보다 더 교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3.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복착용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유는 『단정하고 학생답게 보인다』, 『집단규칙의 범위내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용이하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의 순이었고,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개성을 나타낼 수 없다』, 『활동에 불편하다』, 『외출복을

따로 준비해야 되기 되므로 경제적 이중부담이 된다』의 순이었다.

4. 교복착용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대부분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만 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이유는 『단정하고 학생답게 보인다』, 『집단규칙의 범위내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용이하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의 순이었고, 불만인 이유는 『활동에 불편하다』, 『학생들의 개성을 나타낼 수 없다』, 『심리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의 순이었다.

5.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복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대체적으로 교복착용에 찬성의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고등학교 교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교사들이 교복에 대하여 느끼는 불만 사항인 비활동적이고, 기온에 따라 대처하기 어렵고, 학생의 개성 표현이 부족하며,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준다는 점을 보완한 교복 디자인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중·고등학교 교복이 기성복 업계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으므로 여러 기성복 업계에서는 착용하는 학생, 지도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들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교복 디자인 개발에 앞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명순, 한국여성의 양장 변천에 관한 연구, 세종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1, p. 1.
- 2) Horn, M.J. & Gurel, L.M.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1.
- 3) 장형임, 서병숙, 교복자율화 이후 남녀 중학생의 의생활 실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제14집, 한양대학교, 1968.
- 4) 이규태, 개화백경, 신태양사, 1965, p. 223.
- 5) 생활지도 장학관실, 중·고교생의 교복과 머리모양의 자율화, 문교부, 1982, p. 54.
- 6) 김재화, 남자 고등학생 겨울용 교복디자인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7) 동아일보, 1988. 2. 9.
- 8) 김순화, 교복착용이 학생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1992, p. 8.
- 9) Rosenthal, R. & L. Jacobson, *Pygmalion in the Classroom*,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68.
 - 10) Behling, D. U. & E. A. Williams, "Influence of Dress on Perception of Intelligence and Expectations of Scholastic Achievement", *C.T.R.J.*, 제9권 4호, 1991, pp. 1-9.
 - 11) 김종서의 2인,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1991, p. 363.
 - 12) 문교부, *가정1*, 1989, pp. 14-15.
 - 13) 최혜선, *의복행동과 사회적 안정감.불안감과 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 4.
 - 14) 김태련·장취숙, *발달심리학-태내기부터 성인 후기까지*, 박영사, 1987.
 - 15) 이선신, *여자중·고등학생의 의복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6권 1호, 1982, p. 40.
 - 16) Ryan, M.S., *Clothing : A Study of Human Behavior*,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5, p. 270.
 - 17) 고유빈, *여중생 통학복 차림의 경향성과 이상적인 통학복의 모형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270.
 - 18) 최보규·이영숙, *여중생 교복 상의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4권 4호, 1976, 12, p. 933.
 - 19) 조금호, *현대 한국청년의 정체의식*, 청년연구 제2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9.
 - 20) 김경애, *여고생의 통학복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 4.
 - 21) 임영미, *옷과 장신구와 옷입는 것의 여러가지*, 경춘사, 1984, p. 5.
 - 22) 임숙자, *의상선택의 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생활과학연구원, 논총, 제18집, 1977, pp. 140-141.
 - 23) Smucker, B. & A.M. Creekmore, : *Adolescents' Clothing Conformity, Awareness, and peer Acceptance*, *H.E.R.J.*, 제1권 2호, 1972, pp. 92-97.
 - 24) Kelly, E.A., C.W. Daigle, R.S. Lafleur, & L.J. Wilson, "Adolescent Dress and Social Participation", *H.E.R.T.*, 제2권 3호, 1974, pp. 167-175.
 - 25) Behling, D.U. & E.A. Williams, *전계논문*, 1991, pp. 1-9.
 - 26) Liskey-Fitzwater, N., C.L. Moore, & L.M. Gurel, "Clothing Importance and Self-Perception of Femal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Scoliosis", *C.T.R.J.*, 제11권 3호, 1993, pp. 16-22.
 - 27) 노시채, *중·고등학생 용의 자율화에 따른 대책*, *신교육연구*, 제2권 2호, 1982, p. 12.
 - 28) 정충량, *이화 80년사*, 이대출판부, 1967, p. 9.
 - 29) 배재 80년사, 동아출판사, 1965, p. 77.
 - 30) 최문길, *중·고교생의 교복 자율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p. 8.
 - 31) 남윤숙, *한국 여학생 교복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고찰*, 수도여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p. 28.
 - 32) 남윤숙, *전계논문*, 1972, p. 26.
 - 33) 이경자, *교복자율화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43집, 1983, p. 323.
 - 34) 남윤숙, *전계논문*, 1972, p. 38.
 - 35) 이경자, *전게서*, 1983, p. 323.
 - 36) 최진환, *전계논문*, 1984, p. 7.
 - 37) 최문길, *전게서*, 1974, pp. 6-12.
 - 38) 장형임, *교복 자율화 이후 남녀 중학생의 의생활 실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 9.
 - 39) 홍춘기, *여고생 자율복장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1985, p. 7.
 - 40) 안인희, *우리나라의 남녀 중·고등학교 교복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2.
 - 41) 생활지도 장학관실, *전게서*, 1982, p. 54.
 - 42) 전광문, *자율화 조치에 따른 청소년 비행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 청소년 지도 육성회, 1982, p. 7.
 - 43) 오덕렬, *제 5공화국 교육치적, 문교행정*, 제62호, 1982.2.
 - 44) 최진환, *교복 및 두발의 자율화에 따른 중등학생의 행동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 1.
 - 45) 이수희, *여고생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 연구*

- 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18.
- 46) 대전일보, 1989년 12월 11일, 1면.
- 47) 전경란, 여자 중·고등학생의 신교복 착용 실태, 논문집, 제30집, 공주대, 1992, p. 330.
- 48) 전경란, 전계논문, 1992, p. 330.
- 49) 장형입, 전계논문, 1984, pp. 5-6.
- 50) Langner, L., Clothes and Government, in Roach, M.E. & Eicher, J.R.(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 Sons, 1965, pp. 126-127.
- 51) Horn, M.J. & L.M. Gurel, 전계서, 1981.
- 52) Laubach, A.R., School-Controlled Conformity of Dress for Teenagers and It's Relation to Selected Behaviors and Security-In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2.
- 53) 김영인·강혜원,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5권 2호, 1981, p. 64.
- 54) 김정희, 서울시 남·녀 고교생의 교복, 자유복 착용에 따른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의 차이,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55) 이수희, 전계논문, 1988.
- 56) 이인자, 교복 착용 여부와 청소년 비행 행동간의 관계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6권 1호, pp. 85-96.
- 57) 권혜원의 6명, 여고생의 의복실태조사에 따른 디자인 연구, 부학, 1983, p. 39.
- 58) 김순화, 전계논문, 1992, p. 8.
- 59) 최홍자, 교복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60) 김경선의, 우리나라의 여고생의 의복실태조사, 부학, 연세대 가정대학, 12(13), 1980, pp. 11-14.
- 61) 김영인·강혜원, 전계서, 1981, pp. 13-19.
- 62) 김순화, 전계논문, 1992, p. 9.
- 63) 이수희, 전계논문, 1988, pp. 31-32. ; 김정희, 전계논문, 1990.
- 64) 김정희, 전계논문, 1990.
- 65) 이수희, 전계논문, 1988.
- 66) 김희련·최혜선, 남자 중학생 교복의 치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발표회, 1994.4.16., p. 33.
- 67) 管倅生·吳麗娟, 대만 고등학생 동복의 형식과 색상의 연구, 제12회 국제복식학회 학술회의, 1993. 7.27., pp. 83-87.
- 68) 김영인·강혜원, 전계서, 1981.
- 69) 김정희, 전계논문, 1990.
- 70) 이수희, 전계논문, 1988.
- 71) 김순화, 전계논문, 1992.
- 72) 최보규·이영숙, 전계서, 1975.
- 73) 이수희, 전계논문, 1988, p. 35.
- 74) 김순화, 전계논문, 1992, p. 22.
- 75) 이수희, 전계논문, 1988, p. 43.
- 76) 이수희, 전계논문, 1988, p. 32.
- 77) 이수희, 전계논문, 1988.
- 78) 최홍자, 전계논문, 1974.
- 79) 고유빈, 전계논문, 1990.
- 80) 이수희, 전계논문, 1988, p. 35.
- 81) 최보규·이영숙, 전계서, 1976.
- 82) 이수희, 전계논문, 1988.
- 83) 김정희, 전계논문, 1990.
- 84) 김순화, 전계논문, 1992, p. 21.
- 85) 이수희, 전계논문, 1988.
- 86) 김순화, 전계논문, 1992.
- 87) 이수희, 전계논문, 1988.
- 88) 김춘식, 여고생 교복의 동작 가능성에 관한 연구 ; 하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89) 이수희, 전계논문, 1988.